2024년 05월 17일 21시 47분

마지막 수업

2015.08.23 조회수 109 등록자 김경아

'벌써 마지막 연극 수업이라니 ...'하며 아쉬운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수업에 들어갔다. 오늘도 역시나 거짓과 진실 말하기, 거울 모션 취하기, 하려다 말아 재미없게 끝낸 사람 죽이기 게임 등으로 가볍게 몸풀기로 시작했다.

팀 나누기도 발 크기로 나누시다니 역시 연극 선생님은 정말 기발하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멋진 분이셨다.그리고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제각각의 생각과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연극 수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겠다는 것과 몸으로 부딪히는 여러가지 재미난 게임을 하며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이런 게임들은 실생활에서도 적용해서 놀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연극 수업은 연극 수업인지라 시간이 더 많이 허락되었다면 진짜 연극을 해봤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마음에 이렇게 다섯번의 연극 수업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다.

글쓰기 목록

‹ 이전글 연극반 후기(최예나)

다음글 마지막 수업 ›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